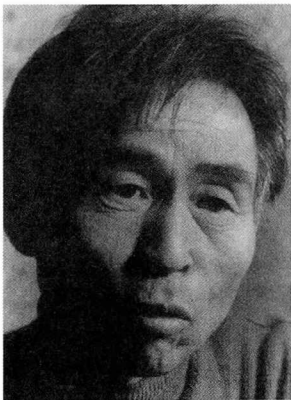


늦깎이 책읽기

천규석

농부·공생농 두레 이사



"하루 한 페이지라도 손에 책을 잡지 않고는 그날이 가는 것이 아까와 잠들지 못한다. 남은 삶도 고향에 정착해서 텃밭 가꾸며 언젠가 도래할 지역두레 세상을 맞기 위한 책 읽고 글 쓰는 재미로 이어지고 끝나기를 바란다."

나는 농부인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농사일 거들라는 말만 들었지, 공부하라거나 책을 읽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럴 형편도 아니었겠지만, 당연히 부모님은 교과서 외에 어떤 책도 사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고 책이 읽고 싶었다.

책이 고귀(?)했던 시절에 교과서 외에 읽을거리로 간혹 볼 수 있었던 친구는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시장 주변에 사는 넉넉한 집 아이들이었다. 이런 친구들로부터 간신히 빌려보는 소년소녀잡지나 순정소설 등은 얼마나 재미있던지 밤 새워 다 읽고 또다시 읽은 뒤에도 되돌려주기 아까웠다. 그 시절에 우리는 배만 고팠던 게 아니고 독서욕에도 목말랐다.

대학시절도 형편은 마찬가지로여서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당시에 금서로 묶였던 사회주의 서적을 청구했다가 퇴짜를 맞으면 때아니게 《수호지》·《삼국지》 등 대중무협소설이나 역사소설을 읽기도 했다. 대학친구들이 전공공부로 대학교수 준비를 하거나 영어·경제원론 등의 '시급한 민생고' 책으로 취직시험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세상살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철학·사회과학책이나 중·고교 때 못 읽은 소설이나 읽는 지각독서를 한 꼴이다. 독서도 유행과 심리적 주기를 탄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귀농해 농사와 농민운동을 하던 귀농 초기에는 해방신학과 사회과학서적이 그렇게 맛있더니, 졸지에 아내를 잃은 뒤에는 대체의학과 환경관련 책이 그렇게 맛이 있었다.

90년대부터 출판물 물량공해시대가 시작되자 오히려 책이 싫어졌고 읽을 만한 책도 찾기 어려운 독서공백기를 맞는다. 피나게나 책쓰는 세상에 남의 책 지각독서나 할 게 아니라 까짓것 나도 책이나 한 번 내지는 오기로 두 권의 책을 냈다. 이 독서공백기를 겪은 시절에 못 읽었던 동서양고전이나 명작이란 것으로 채우고자 했으나 솔직히 재미가 너무 없어 몇 권 못 읽고 때려치웠다.

지금의 내가 가장 목말라서 맛있게 읽는 책은 생태사상이나 제3세계 민중의 삶, 특히 토착 원주민의 공동체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나는 지각독서나 겨우 하는 과독서인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하루 한 페이지라도 손에 책을 잡지 않고는 그날이 가는 것이 아까워서 잠들지 못한다. 앞으로 남은 삶도 고향에 정착해서 텃밭이나 가꾸며 언젠가 도래할 지역두레 세상을 맞기 위한 책 읽고 글 쓰는 재미로 이어지고 끝나기를 바란다. ❖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는가

강문필

농부



"늘상 대하는 식탁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무식한 농사꾼이지만 책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자연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다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6·25이후 처음 겪는 국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이픔을 겪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골아이부터 귀가 어두운 어른들까지 IMF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나라 구석구석이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된 이유는 경제관료들의 실정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물질만능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민 개개인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쌀 한톨도 나누며 살던 선조들의 지혜는 사라지고, 불과 수십년 사이에 우리 민족은 수지타산을 밝히는 족속으로 변질됐다.

타산적인 생각에 빠진 농민들 또한 농약이 범벅된 곡식을 생산하여 도시민을 죽음의 식탁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고 있다. 허용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 채소의 생산은 환경호르몬 문제를 야기했다. 머지 않아 유전자가 교란되어 돌연변이 상태로 태어난 후손들이 세상을 이 꼴로 만든 할아버지, 할머니, 에미, 에비를 원망할 것이다. 이런 망상을 하다보면 자다가도 섬짓 한 생각이 든다.

《도둑맞은 미래》(사이언스북스)는 1938년 영국의 과학자 찰스 노드와 동료들이 발명한 합성화학물질인 DE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물질은 유산과 조산을 방지하는 약이지만, 이후 발전을

거둬주며 성장기에 있는 10대 소녀들의 온갖 질병의 치료약은 물론 피임약 등으로 널리 남용됐다. 농부들도 기축을 빨리 살찌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30년 이상 약에 노출된 세계 여성들로부터 기형아들이 태어난 사실도 밝혀져 오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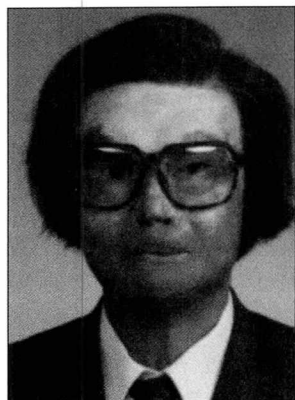
《녹색평론》 2월호 서문에 따르면, 몇해전 이스라엘에서 의사들이 한달 동안 파업한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의 사망률이 50%나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병을 고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해가 되는 예는 수없이 많다.

이제는 늘상 대하는 식탁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연은 지금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방편만 생각하는 약삭빠른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무식한 농사꾼이지만 자연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다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는 자연학교

채규철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자연학교를 시작한 지
어언 11년이다. 사람들은
나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 학교를 하느냐고 묻는다.
그때 내 대답은 간단하다.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라고.”

지난해 여름 찌는 듯한 더운 날에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왔다. 느닷없이 담당 아나운서가 묻는다. “선생님의 자연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고. 나는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학교입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깜짝 놀란다. “세상에 노는 학교도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 질문은 “아이들이 뭘 하고 놀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다.

“우리 자연학교에서는 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들꽃하고 놀고, 올챙이 개구리하고 놀고, 사마귀 반딧불하고 놀고, 물에 사는 피라미 격지 돌고기하고 놀고, 비 바랍하고 놀고, 밤에는 별과 달하고 놀고, 아이들은 친구와 선생님하고 놀니다.”

그때서야 아나운서가 이해가 가는 모양이다. “아! 그렇군요” 한다.

나는 환갑이 지난 지금도 고향을 잊지 못한다. 성천강과 호령천강이 굽이쳐흐르는 아름다운 곳 함흥. 이태조의 아버지 능이 있는 정화능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는 사과나무와 포도밭을 가꿨고, 젓소와 닭을 키우는 목장을 했다. 우리 집 울타리 옆에는 수백년 된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고 그 나뭇가지에는 백로들의 무리가 판자촌이 무차별하게 날려 있었다. 나는 동네 개구쟁이들과 새집을 털어 알을 삶아

먹고, 산 속의 머루와 다래를 따먹었으며, 아침 일찍부터 모래무지 붕어낚시에 정신이 팔려 학교를 빼먹고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았다. 그때의 추억들은 지금도 내 눈에 필름처럼 박혀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6·25가 나자 따뜻한 남쪽나라 거제도 지세포라는 작은 어촌마을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살았다. 이북 함흥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다. 지세포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멸치어장에서 밤에는 칼치 빨래기낚시를 하고 낮에는 아이들과 창으로 바위틈에 숨어 있는 흑돔을 잡으러 다니고, 밀물 때면 합자와 굴을 따러 다니는 등 신나게 놀았다. 지게 지고 나무하러 산에 가서 따먹던 어름과 산딸기맛을 생각하면 지금도 침이 넘어간다.

내가 자연학교를 시작한 지도 어언 11년이 됐다. 사람들은 나보고 일년에 몇백만원씩 돈을 까먹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학교를 하느냐고 묻는다. 그때 내 대답은 간단하다. “어렸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

군불 지핀 방에서 아껴 읽는 책들

박남정

귀농인



“요즘처럼 일거리가 없고
시간이 많을 때 책은 더 귀하고
반갑다. 허겁지겁 일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아껴읽기가 시작된다.
좋은 책은 더하다. 생쌀을 씹어
단물을 목으로 넘기듯 천천히
잘근잘근 책을 읽는다.”

겨우내 마을의 몇 안되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천렵에 개구리잡이에 아이처럼 신명을 내던 남편이 입춘이 지나자 마음이 바빠지는 모양이다. 집뒤 뒷밭에 육묘하우스를 짓느라 이른 아침부터 두드리고 자르고 부산을 떤다. 올해로 세해째 농사니, 우리 밭에 심을 작물의 모종을 직접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나보다.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곁에 썼는데 어깨에 내리는 별살이 꽃이라도 불려낼 만큼 따시롭다. 마음이 달떠 공연히 허물어진 팔고랑 사이를 어슬렁거린다. 지난 여름 뽕고 돌아서면 다시 고개를 내밀던 그 질긴 짐초들은 어디에다 제 씨를 묻고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내친 김에 인삼밭이 띄엄띄엄 있는 야산 허리를 돌아 교회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걷는다. 그 길을 한바퀴 돌아오면 나무판자로 큼직하게 만든 우리집 우체통이 나온다. 며칠전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윤주영씨의 사진집 《일하는 부부들》이 꽂혀 있다. 길을 되돌아 걸으며 책장을 숨가쁘게 넘긴다. 들에서 바다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의 다양한 삶들이 확확 지나간다.

이곳에 온 이후로 책과의 첫 대면은 늘 이렇다. 우체통에서 짐까지의 거리를 참아낼

수 없는 것은 읽을거리에 대한 ‘허기’가 그만큼 큰 탓이다. 하물며 도시에서는 처치 곤란인 광고전단도 구경하기 힘든 형편이니, 특히 요즘처럼 일거리가 없고 시간이 많을 때 책은 그만큼 더 귀하고 반갑다. 허겁지겁 일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아껴읽기가 시작된다. 좋은 책은 더하다. 생쌀을 씹어 단물을 목으로 넘기듯 천천히, 잘근잘근 책을 읽는다.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도 그런 책 가운데 하나다. 하루만에 다 읽어버리기 아까워 책을 읽다말고 콩자루를 쏟아 부었다. 추수때 채 가리지 못한 돌을 하나씩 가려내며 신념에 찬 두 부부의 아름다운 삶이 주는 감동을 되렷기했다. 요사이엔 박지원의 아들이 짓고 박희병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나의 아버지 박지원》을 그렇게 읽고 있는 중이다.

혼자 파이프를 이어 하우스 뼈대를 그럴 듯하게 지어놓은 남편이 잘 마른 고추나무를 한아름 들고 아궁이 앞에 앉는다. 벌써 해가 질 무렵이다. 그가 군불을 지피 식어가던 방구들을 다시 덥힐 동안 저녁을 짓는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면 이불 속에 발을 묻고 읍내 도서관에서 빌려온 오정희의 소설을 다시 읽는다. 밤이 아직 깊다. ◆